

■ ‘잔반 줄이기’ 변화하는 음식점 한정식 식당 뷔페식으로 식탁 김치독 “덜어드세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발효된 지난 3일부터 식당에서 남은 음식(잔반) 재사용이 금지되자 광주·전남지역 식당들이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 다양한 아이디어를 쏟아내고 있다.

음식물 쓰레기가 넘쳐날 수 밖에 없는 한정식 식당에선 뷔페 형식으로 음식을 제공하고, 곰탕집은 작은 단지에 각두기와 배추김치를 담아 국자로 먹을 만큼만 떠 먹게 하고 있다. 또 일부 식당들은 주방에 카메라를 설치해 음식을 조리하는 과정과 잔반 처리 모습을 식당내 대형 TV를 통해 공개하고 있다.

요식업계의 이같은 노력은 음식물 쓰레기 배출량을 줄이고, 소비자로부터 신뢰를 얻음과 동시에 법을 위반에 따른 영업정지 등의 불이익을 피할 수 있어 '1석 3조'의 효과로 이어지고 있다.

에 따르면 이 식당은 내부 공사를 거쳐 지난 6월 말부터 '뷔페형 한정식'으로 탈바꿈했다.

또 나주시 금계동에 자리잡은 곰탕집 남평식당은 기존에 접시에 담아 내왔던 각두기와 배추김치를 한 쟁크기의 단지에 담아 제공하고 있으며, 광주시 서구 치평동의 한 식당은 대형 TV를 통해 주방 모습을 실시간 공개하고 있다.

앞서 순천시 태화정과 청해일식 등 9곳은 시로부터 설치비용의 50%를 지원받아 주방에 CCTV를 설치했다. 이들 식당은 음식이 조리되는 과정과 잔반처리 과정 등을 식당 내에 마련된 대형 TV를 통해 공개해 손님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돌집 문금숙(여·60)씨는 "밥과 국을 제외하고 반찬은 예전보다 양을 크게 줄여 내놓고 있다"며 "손님들의 반응도 좋은 편"이라고 밝혔다.

13일 목포시 북만동 한정식집 돌집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영광 음주 공무원 주민 폭행해 중태

영광경찰은 13일 사소한 시비 끝에 시민을 폭행해 다치게 한 영광 모면사무소 직원 A(47)씨를 폭행치상 혐의로 불잡아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9일 밤 10시 50분경 영광군 모 단란주점 앞에서

이모(42)씨를 밀어 넘어뜨려 중태에 빠뜨린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머리를 심하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져 두개골 골절 진단을 받고 뇌수술을 받았으며, 의식불명에 빠졌다가 12일 의식을 회복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가 동료직원 2명과 함께 술을 마시고 자리를 옮기던 중 단란주점 앞에서 이씨를 우연히 만나 시비를 벌이다 몸싸움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영광=조익상기자 ischo@kwangju.co.kr

“병원 안간다” 50대 숨진채 발견

집앞 넘어진 뒤 119 구급대 이송 거부

13일 오전 8시50분경 광주시 북구에 사는 윤씨(51)씨의 집 욕실에서 윤씨가 쓰러져 숨져 있는 것을 후배 A씨가 발견, 경찰에 신고했다.

A씨는 경찰에서 “형이 전날 넘어지면서 머리 뒷부분에서 피가 났었다. 걱정돼 아침 일찍 집에 찾아갔다니 숨져 있었다”고 진술했다. 혼자 사는 윤씨는 전날 집 대문 앞에서 넘어져 머리에 피가 나고 목이 아프다고 주변인들에게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윤씨의 부상소식을 듣고 찾아가 전날 오후 5시에 119구급대를 불렀으나 윤씨는 A씨에게 ‘병원이송 거부 확인서’를 쓰게 하고 병원에 가는 것을 거부했다고 관할 소방서는 밝혔다. 당시 출동했던 한 119 구급대원은 “윤씨에게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아봐야 한다’고 권유했는데, 거부했다”고 말했다.

/이종형 기자 golee@kwangju.co.kr



13일 광주시 북구 임동 오거리에서 2차선을 주행 중이던 오토바이가 갑작스럽게 좌회전하자 1차선을 달리던 차량과 뒤따르던 차량이 황급히 멈춰서고 있다.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도로의 무법자’... 부딪치면 사망

확한 운전 사고 제로

④ 오토바이 사고

오토바이는 도로 위의 ‘무법자’로 통한다. 일반 차량에 비해 단속이 어려운 데다 위험천만한 곡예 운전 등으로 인해 통행을 방해하는 사례가 많기 때문이다.

올 들어 광주에선 하루 평균 2건 꼴로 오토바이 사고가 발생해 ‘교통사고 1위 도시’의 오명을 쓰는 데 한몫을 했다. 특히 광주는 지난해 상반기에 비해 오토바이 사고가 10% 가량 늘어나 사망자 및 부상자 수도 덩달아 급증세를 보이고 있다.

오토바이는 가벼운 사고로도 큰 부상은 물론, 사망사고로 이어질 위험성이 크다. 따라서 광주의 교통문화 개선을 위해선 오토바이 운전자들의 각별한 주의와 함께

단국의 지속적인 단속과 제도활동이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13일 광주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올 들어 6월까지 광주에서는 총 4천301건의 교통사고가 발생, 64명이 숨지고 6천805명이 크고 작은 부상을 입었다. 이 중 오토바이 사

무질서·난폭 ‘위험천만’
올들어 324건 9명 숨져
도주 빨라 단속 어려움

고는 324건이 발생해 9명이 숨지고 423명이 부상당했다.

또 이같은 사고건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295건)보다 9.8%나 증가한 것으로, 오토바이 사고로 인한 사망자와 부상자 수도 날이갈수록 늘어나는 추세다. 광주는 오토바이 사고로 인한 사망자가 지난해 상반기 6명에서 올해는 9명으로 늘었고, 부상자 수도 지난해

광주선진교통문화 범시민운동본부·광주일보 공동 캠페인

367명에서 올해는 423명으로 급증했다.

이처럼 오토바이 사고가 끊이지 않는 것은 오토바이 운전자들의 안전의식 부족이 주된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갑작스런 차선 위반은 물론 잦은 끼어들기, 신호 위반, 중앙선 침범 등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좀처럼 근절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또 헬멧 등 보호 장구를 제대로 착용하지 않는 운전자가 많아 가벼운 사고임에도 불구하고 중상으로 연결된다는 게 교통당국의 분석이다.

경찰 관계자는 “밤과 낮을 가리지 않고, 무질서하고 난폭하게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시민들로 인해 광주의 도로가 몸살을 앓고 있다”면서 “오토바이는 차량과 차량 사이의 좁은 틈을 비집고 이동하거나 골목 등으로 재빨리 도주하는 경우가 많아 단속이 어려움이 크다”고 말했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오늘 날씨
해돋이 05시 28분 / 해질 19시 48분 / 달뜨기 23시 13분 / 달지기 11시 38분

해안지역 강풍
장마전선의 영향을 받아 호리고 비가 오겠으며 해안지역은 바람이 강하게 부는 곳도 있겠다.

지역	날씨	기온
광주	호리고 비	23/28℃
목포	호리고 비	23/27℃
여수	호리고 비	24/27℃
완도	호리고 비	24/28℃
구례	호리고 비	24/28℃
애남	호리고 비	24/28℃
장흥	호리고 비	24/28℃
고흥	호리고 비	24/28℃
순천	호리고 비	24/28℃
영광	호리고 비	23/27℃
진도	호리고 비	24/28℃
전주	호리고 비	23/28℃
남원	호리고 비	23/27℃
목산도	호리고 비	21/25℃

지역	바다	풍향	파고	지외선지수	식중독지수	블랙지수
서해 남부 앞바다	남~남서	남~남서	2.0~3.0m	보통	경고	높음
남해 서부 앞바다	남~남서	남~남서	1.5~2.5m	보통	경고	높음
서해 남부 앞바다	남~남서	남~남서	2.0~3.0m	목욕	06:13	11:32
남해 서부 앞바다	남~남서	남~남서	1.5~2.5m	여수	00:37	07:01
남해 서부 앞바다	남~남서	남~남서	2.0~3.0m	여수	13:19	18:57

◇주간날씨
기상안내전화 : 국번없이 131 [광주지방기상청]

날짜	15(수)	16(목)	17(금)	18(토)	19(일)	20(월)
날씨	☁	☁	☁	☁	☁	☁
최저/최고	22/30	22/30	23/30	23/31	23/31	23/31

믿음, 소망, 사랑으로 아름다운 세상을 만드는
젊은 지식인의 교육의 요람!!
광신대학교
학부: 062-605-1114 / 대학: 605-1115

전남대도 학과별 모집

올 입시부터 '5개 학부 → 10개 학과' 전환 추진

지난 해 ‘대학 모집단위 자율화’ 발표 이후 학과제 전환 바람이 일고 있는 가운데 전남대가 5개 학부를 10개 학과로 전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2010학년도 대학 학생정원 조정안’을 교육과학기술부에 제출했다.

전남대는 응용화학공학부·산림자원조경학부·수학통계학부·분자생명과학계열·식품수산생명의학부 등 5개 학부에 대해 학과로의 전환을 요청했다고 13일 밝혔다.

응용화학공학부는 기존의 5개 전공 가운데 고분자공학전공·섬유공학전공을 묶어 고분자·섬유시스템공학과와 기존 응용화학공학부 등 1개 학부와 1개 학과로 분리할 계획이다. 수학통계학부는 13년만에 다시 수

학과와 통계학과로 분리될 예정이다. 또 분자생명과학계열이 생물학과와 화학과로, 식품·수산생명의학부는 식품공학·영양학부 및 수산생명의학과로 각각 모집 단위를 분리했다.

이밖에 의예과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현재 자연과학대에 속해 있는 의예과, 수의예과를 의과대학과 수의과대학 소속으로 각각 옮길 계획이다.

이번 조정안에는 교육과학기술부의 세계연구중심대학(WCU)사업 과제에 선정됨에 따라 바이오에너지공학과를 신설한다는 내용과 일반학부를 자율전공학부로, 생물산업공학과를 지역·바이오시스템공학과로 명칭을 변경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채희중기자 chae@kwangju.co.kr

광주, 교통약자 배려 서비스 전국 최하위

국토부 발표, 전남은 5위

장애인과 노인, 어린이 등 교통약자를 배려하는 광주시의 교통서비스가 전국 7대 광역시 중 최하위권인 것으로 조사됐다. 전남도는 9개 도에서 5위에 머물렀다.

국토해양부가 13일 발표한 교통약자 복지수준 평가결과에 따르면 광주

시는 보행자 사고율과 고령자 및 어린이 사고율, 특별 교통수단 보급률과 이용률 부문에서 ‘골짜기’를 차지하는 등 대부분의 항목에서 최하위를 밀물면서 7개 특별·광역시 가운데 울산(7위)에 이어 6위를 기록했다.

전남도의 경우는 여객시설 부문에서는 1위를 차지한 반면, 고령자 및 어린이 사고율과 특별 교통수단 보급

률 부문에서는 모두 ‘골짜기’를 기록해 9대 도(도) 종합순위 5위를 차지했다.

한편, 국토해양부는 여객시설과 교통수단의 이동편의시설 등 9개 항목을 기준으로 7개 특별·광역시와 9개(도)의 교통복지를 평가했으며, 서울과 경기도가 각각 1위를 차지했다.

/최원일기자 cki@kwangju.co.kr

비데프리카 개업 15주년 기념 노비타 비데 세일!!

돈보다 비데

부딪힐 선택은 한과야 최고다!
너, 노비타 비데를 만나거 편파자는...
편파야 다른 비데를 구매하려는 것에는
이해 있는 것도 선택,
노비타 비데 지금 바로 선택하세요!

NO-KA180
370,000원
195,000원

노비타비데및수리비데프리카
비데프리카 | ☎0621515-1144

나만의 특별한 유학, 믿고거자!!

아일랜드 유학 설명회

Study Abroad & English Language Seminar 2009 in IRELAND
아일랜드 조기 유학 및 교환학생 / 대학연수 / 인턴쉽 / 영어연수

- 아일랜드 전역가 전국 방문 설명회
- 신청비용 없는 나라 / 장학금도 많은 나라
- 교육과제 / 장학금 / 문화 / 국제 교류
- 다양한 유학 / 인턴쉽 / 교환학생
- 행사장: 7월 17일(수) / 7월 18일(목) / 7월 19일(금)

7월 19일 일요일 2pm 김대중컨벤션센터 2층 203호

주최: 한국유학진흥원 / 후원: 한국유학진흥원 / 후원: 한국유학진흥원 / 후원: 한국유학진흥원